

가정예배순서지 <2021. 10. 24>

사도신경 _____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_____ 찬송가 11장 _____ 다같이

1절 :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2절 :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3절 :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대표기도 _____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봉독 _____ 출20:7 _____ 다같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
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 씬 _____ 십계명(4) - 하나님을 부르라(설교예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_____ 인도자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예문 <십계명(4) - 하나님을 부르라>

십계명 20:7

홍예랑 목사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계명입니다. 부르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3계명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 일까요? 요즘은 우리가 ‘망령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세번째 계명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공허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이것은요. 진짜로, 마음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나님을 마음 다해 부르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시간아 흘러가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람들, 거짓으로 부르는 사람들, 허탈하게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한다 라는 표시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이니까,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예배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12:28)”

이 말씀에서 ‘섬길지니’라는 말은 “예배할지니”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